

#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 완 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Impact of Relational Self Psychology and Community Attitudes toward Mentally Ill Persons on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ark, Wan-Ju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ors influencing adjustment during army life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onal self,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CAMI), and adjustment during army life in Korea. **Methods:** A cross sectional study design was conducted with 230 soldiers from two military units located in Y and B c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Results:** Empathy-car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adjustment during army life. Avoidance of relationships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adjustment. Negative concepts in CAMI, such as authoritarianism and social restrictiveness, became more negative. Positive concepts in CAMI, such as benevolenc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were lacking. Significant factors were empathy-care, authoritarianism, overdependence on relations, and social restrictiveness which explained 30.1% ( $F=8.55, p<.001$ ) of adjustment during army life. **Conclusion:** To improve military adjustment for soldiers, it is necessary to reduce misunderstandings of people with mentally illness as well as to make efforts towards systema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ventions for positive evaluation of self and others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of soldiers.

**Key Words:** Self psychology, Mentally ill persons, Social adjustment, Army personnel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개인주의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의 합리주의 등의 가치관 변화는 군 장병들의 조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군에 입대하고 있는 병사들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배경과 생활환경에서 성장한 신세대들로 개별성과 다양성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Han & Song, 2011; Jung, 2006; Koo, 2005). 이러한 신세

**주요어:** 자기, 정신질환, 적응, 군장병

**Corresponding author: Park, Wan-Ju**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jin 2-ga, Jung-gu, Daegu 700-422, Korea

Tel: +82-53-420-4977, Fax: +82-53-431-1020, E-mail: wanjupark@knu.ac.kr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북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비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1, and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투고일 2013년 5월 30일 / 수정일 2013년 8월 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2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 장병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특성이 권위적이고 폐쇄적 구조인 군의 이질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적응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Yang, 2007). 이들은 강제적이고 수직적인 명령 체계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갈등에 부딪치게 된다(Jung, 2006).

국내의 경우, 매년 20만 명 이상 군에 입대하고 있는 장병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신체나 지적 사고력은 풍부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회의적이고 불안정하며, 미성숙한 행동의 특징들을 보인다(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RC], 2008). 군은 이러한 문제들로 초래되는 부적응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보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외부에서 군 내부에 발생하는 관련문제의 정확한 빈도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군 장병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의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정신간호사의 중재개입의 기회가 어렵고, 일회성의 교육이나 선별검사만 주로 제공되고 있어 전문가의 적절한 중재전략이나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의 대응책이 부족한 실정이다(Kim, Kim, Woo, Park, & Keum, 2011).

국민권익위원회(ACRC, 2008)의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육군본부의 복무기간별 자살사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살의 69.3%가 군 복무 시작 1년 미만에서 일어났다. 이는 군 복무 초기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완료한 151건의 의문사 중 자살이 74건이었으며, 이중 64%는 내무생활 약속, 인격적 모독, 상담창구의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인간관계나 편견 또는 지지자원 활용 등의 문제가 군 장병의 개인적 문제인 24%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ACRC, 2008). 이렇게 군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새로운 접근의 연구방법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문적 기초자료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Dedic과 Kostic (2001)은 군 생활 적응에 있어 내제된 인간관계적 갈등구조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가 군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인간관계적 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군내의 인간관계 속에서 집단체제에 적응을 위한 예측변수들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self)는 홀로 발현되거나 개발되기보다는 관계적이다

(Baumeister, 1997).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자기개념을 얻게 되고, 성숙되는 관계적 자기를 갖게 된다. 관계적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Bang & Cho, 2004). 개인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관계 맥락의 추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관계적 자기가 관여된다(Cho, Bang, Cho, & Kim, 2008). 즉, 한국 성인(Bang et al., 2007), 기혼남녀(Kim, 2008), 자녀를 둔 어머니(Cho et al., 2008) 대상의 관계적 자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적 자기의 측면을 발달시키고, 상황에 따라 자기 다른 자기 모습을 보였다.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문제나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가지거나, 대인관계에서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하거나, 관계를 회피하거나 관계에 의존하면서 역기능적인 인간관계 양상을 보인다(Yeon & Oh, 2004). 따라서 군 입대로 발생하는 부적응은 환경변화와 함께 새로운 인관관계에서의 관계적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평가하는 속성으로 정신질환자인 타인에 대해 사고하고 느끼고 지각하여 행동을 취하는 조직화된 요인이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문제를 지닌 동료병사를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그릇된 인식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군에서 정신 심리적 문제를 지닐 경우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어 조기치료나 조기개입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부정적 요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군 적응과 정신건강의 매우 중요한 연구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군 적응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유형,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교육 수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행위, 진로결정 수준 등이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Hyun, Chung, & Kang, 2009; Jung, 2006; Kim et al., 2011)으로 보고되면서 개인적 심리차원이나 성장환경적 측면, 가정환경 차원의 요인만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군부대 특성 중 집단의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평가인 다면적 특성과 타인평가를 함께 평가 조사한 국내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인간행동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 중 타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w, Bang, & Cho, 2007). 이러한 인간행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각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Markus & Wurf, 1987). 군 집단생활에서 인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 기능도 강조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Roy (1984)의 적응체계로서의 인간 이론과 Mayo (1933)의 인간관계론 이론을 활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적용체계로서의 인간(Roy, 1984)에서, 체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결된 일련의 부분이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며 각 부분들은 서로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전체성과 관련된 부분의 체계를 투입, 산출, 회환과정의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에게 자극이 투입되면 자극은 통제과정을 거치면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통제과정은 대처과정의 인지기와 조절기가 있으며, 그 다음 효과기는 체계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구조와 기능 과정을 말한다. 집단도 개인과 같이 이러한 적응체계로서 전략을 가지며 안정을 위해 작용하는 과정으로, 집단에서 개인은 집단의 일차적 목적과 사회의 공동 목적에 기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개인은 자아실현이나 최적의 안녕을 유지하게 된다.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이란 인간의 사회적·심리적·감정적 요인을 중시하면서 사기와 생산성, 동기와 만족, 리더십, 소집단 행동의 역동성 등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인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한 이론이다(Mayo, 1933). 인간관계적 접근방식은 인간을 감정을 가진 사회적 존

재로 인식하여 관계에서의 인간의 태도와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Park, 2003). 집단의 구성원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의 균형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 참여 방식을 선호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의 논리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우가 더 많고, 집단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조직 속의 개인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냐의 관계적 개념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Mayo, 1933).

따라서 본 연구는 군 장병의 집단생활에서 적응체계로서의 인간 이론(Roy, 1984)과 인간관계적 이론(Mayo, 1933)으로 접근하여(Figure 1), 군 장병 개인이 조직집단 내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자기 지각(relational self with other)과 타인 지각(perception to others)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지역정신간호사의 군 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정신건강 증진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군 정신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장병들에게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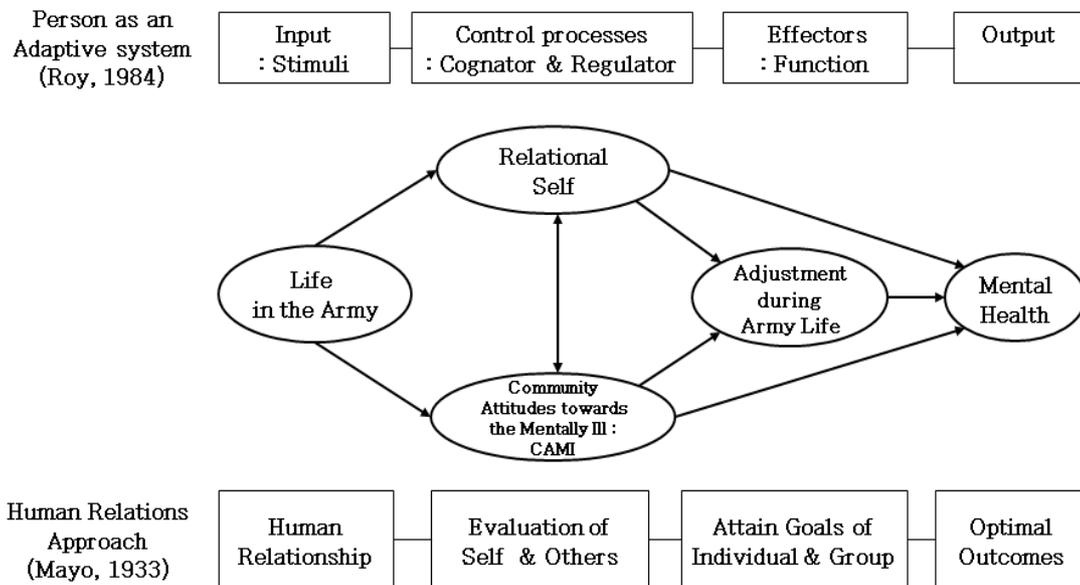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는 예측요인임을 파악하여, 그들의 군 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 군 장병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본다.
-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 장병의 집단생활의 관계 속에서 자기평가인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타인평가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수준과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그리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Y와 B시의 2개 군부대 장병으로, 군대를 방문하여 연대장과 중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의 허락과 협조를 받았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결격 사유가 없는 사병으로 관심병사가 아니며, 현재 정신적 치료를 받지 않은 군인으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수는 다중회귀분석인 경우 예측요인 당 표본크기가 1:20 (Tabachnick & Fidell, 2012)으로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관계적 자기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예측변수 수가 11개로 최소 표본크기가 220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또한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형다중회귀방법에서(Linear multiple regression)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R^2$ ) .15, 독립변수 11개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178개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설문지 미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탈락률 20% 고려하여 26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율 87.0%로 242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12개를 제외한 총 23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 3. 연구도구

#### 1) 관계적 자기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Bang 등 (2007)이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Relational Self Scale, RSS)를 사용하였다.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의식의 7개 하위영역의 31문항으로 한국인의 독특한 관계적 자기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된 도구이다. 지지받기는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경험 및 정서적 지원을, 주도성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관계의존은 인간관계 및 타인에게 과도하게 몰두하고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 초점을 두는 내용을 반영하며, 공감-배려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조화 및 배려를 중시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도구적 관계는 관계를 실제적인 도움과 이득, 파워를 얻으려는 경향성을 반영하고, 관계회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능감 및 관계회피 경향성을 나타내는 요인이며, 타인의식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욕구 등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경향과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관계적 자기척도의 신뢰도는 지지받기 .77, 주도성 .79, 관계의존 .78, 공감-배려 .77, 도구적 관계 .83, 관계회피 .86, 타인의식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자기 척도의 신뢰도는 지지받기 .82, 주도성 .72, 관계의존 .66, 공감-배려 .73, 도구적 관계 .77, 관계회피 .81, 타인의식 .84였으며 전체 관계적 자기 척도의 Cronbach's  $\alpha$  = .76이었다.

#### 2)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Taylor와 Dear (1981)가 개발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도구(Community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Inventory, CAMI)를 Lee, Lee, Hwang, Han과 Lee (1996)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AMI는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권위주의는 정신질환자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비인도주의적 감정으로 대하며, 정신질환자들을 하위계급으로 보아 강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비심은 과학적 이라기보다는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견해이고, 사회생활제한은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 특히 가정에 위협을 주는 존재이기에 입원 중이나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역정보 건개념은 정신질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병이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각 영역 당 10문항씩으로 총 40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일부 문항은 역산한 후 점수를 구하였다. 하위척도 중 긍정적 태도인 자비심과 지역정보건개념의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부정적 태도인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의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총점이나 각 요소의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적이지 않고, 사회생활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비심이 적고, 지역사회정보건개념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Taylor와 Dear (1981)가 도구를 제작한 당시 권위주의 .68, 자비심 .76, 사회생활제한 .80, 지역정보건개념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권위주의 .63, 자비심 .76 사회생활제한 .73, 지역정보건개념 .75였으며 전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척도의 Cronbach's  $\alpha$  = .88이었다.

### 3) 군 생활 적응

Stouffer, Suchman, Devinney, Star와 Williams (1949)가 개발한 군 생활 적응 척도(Adjustment during Army Life Scale)를 Shin (1981)이 한국 군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심신의 상태 3문항, 임무수행의 의지 4문항, 직책과 직무만족 7문항,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12문항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26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Shin (1981)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의 Cronbach's  $\alpha$ 는 심신의 상태 .71, 임무수행의 의지 .86, 직책과 직무만족 .87,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91이었으며, 전체 군 생활 적응 척도의 Cronbach's  $\alpha$  = .93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구진행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 국립병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검토 및 승인(국립B병원 IRB code number: 2-001)을 받은 후, 2012년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고된 훈련이나 군행사가 없는 일상생활훈련을 하는 날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

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연구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폐쇄된 환경과 상명하복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답으로의 편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알아보았다. 대상자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군 생활 적응수준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군 생활 적응 정도를 알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의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관계적 자기 척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선형성(linearity), 정규성(normality), 그리고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에 대한 만족 여부는 잔차의 정규(P-P 도표), 잔차간의 산점도, 잔차의 독립성(Durbin-Watson), 그리고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5세 이전이 전체의 94.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음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25.2%, 불교 11.7%를 차지하였다. 교육 정도는 대학교 재학 중 입대 79.6%, 고등학교 졸업 10.0%, 대학원 재학 중 입대 7.8% 순이었다. 경제 수준은 중간이 61.7%로 가장 많았고, 넉넉한 편이다가 22.2%로 나타났다. 계급은 일병이 40.9%, 상병이 33.0%, 이병이 16.5%를 차지하였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98.7%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까지가 30.9%였고, 11개월에서 15개월까지가 26.5%, 6개월 미만이 16.1%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35.2%였

고 보통이다 30.0%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관계는 아주 원만하다 48.3%였고 원만한 편이다 38.3%로 나타났다.

## 2.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군 생활 적응의 정도

주요변인의 기술적 통계분석에서 관계적 자기의 총 평균은 3.9점으로 하위개념 중 지지받기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감-배려 4.5, 타인의식 4.3, 도구적 관계 4.0, 주도성 3.7, 관계의존 3.6 그리고 관계회피는 2.6점의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총 평균은 3.1점이었고, 하위개념에서는 자비심이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정신보건개념 3.4, 사회생활제한 2.7, 권위주의 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에서는 심신상태가 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책과 직무 만족이 3.3,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3.0, 임무수행 의지가 2.9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는 건강상태 ( $p=.026$ ), 가족관계( $p=.044$ ), 종교( $p=.049$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군 장병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가족관계( $p=.013$ ), 건강상태( $p=.016$ ), 교육수준( $p=.020$ )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함은 전혀 건강하지 않음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관계는 매우 좋음이 보통이다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은 건강상태( $p<.001$ ), 가족관계( $p=.002$ ), 계급( $p=.01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하다가 건강하다, 보통이다, 나쁘다 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건강하다가 보통이다 보다 군 생활 적응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매우 좋다가 보통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급에서 일병은 상병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 4.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군 생활 적응에서의 심신 상태는 관계적 자기에서의 공감-배려( $r=.38, p<.001$ ), 지지받기( $r=.34, p<.001$ ), 관계의존( $r=.29, p<.001$ ), 도구적 관계( $r=.18, p=.006$ ), 주도성( $r=.17, p=.009$ ), 타인의식( $r=.16, p=.014$ ) 순으로 유의한 정상관계가 나타났으며, 관계회피( $r=-.33, p<.001$ )와는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군 생활 적응에서의 심신 상태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자비심( $r=.13, p=.047$ )과는 정상관계가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에서의 임무수행의 의지는 관계적 자기의 공감-배려( $r=.23, p<.001$ ), 관계의존( $r=.22, p=.001$ )과 유의한 정상관계가 나타났고, 관계회피( $r=-.15, p=.020$ )와는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정신보건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230)

Variables	Classification	Range	Min	Max	Sum±SD	M±SD	Skewness	Kurtosis
Relational self	Relationship avoidance	1~6	1.0	6.0	10.6±4.07	2.6±1.01	.50	-0.26
	Consciousness of others	1~6	1.0	6.0	21.3±4.60	4.3±0.92	-.51	0.28
	Agency (Initiative)	1~6	1.4	6.0	18.8±4.09	3.7±0.81	-.18	0.37
	Instrumental relationship	1~6	1.2	6.0	20.1±4.35	4.0±0.87	-.27	0.31
	Empathy-care	1~6	1.0	6.0	18.0±3.01	4.5±0.75	-.81	1.87
	Perceived support from relation	1~6	1.0	6.0	18.7±3.40	4.7±0.85	-.87	1.57
	Overdependence to relation	1~6	1.0	5.8	14.6±2.94	3.6±0.74	-.17	0.42
	Total				17.4±3.78	3.9±0.41	-.18	0.67
CAMI	Authoritarianism	1~5	1.3	3.8	25.4±4.02	2.5±0.40	.03	0.65
	Benevolence	1~5	1.4	4.1	35.9±4.35	3.6±0.44	-.06	0.41
	Social restrictiveness	1~5	1.5	4.5	27.2±4.86	2.7±0.49	.24	1.14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1~5	1.3	4.3	33.5±4.98	3.4±0.50	-.24	0.68
	Total				30.5±4.55	3.1±0.14	.01	-0.18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sychosomatic health state	1~5	1.0	5.0	10.7±2.47	3.6±0.82	-.47	0.43
	Will of mission	1~5	1.0	5.0	11.6±4.15	2.9±1.04	.07	-0.50
	Position & job satisfaction	1~5	1.0	5.0	23.0±6.05	3.3±0.86	-.15	-0.05
	Attitude toward military system environment	1~5	1.0	5.0	36.7±9.42	3.0±0.79	-.14	0.40
	Total				20.5±5.52	3.2±0.68	.02	0.43

**Table 2.** CAMI, Relational Self and Adjustment during Army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Relational self		CAMI		Adjustment during army li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 20	29 (12.6)	4.0±0.38	0.44	3.0±0.11	0.18	3.2±0.63	0.05
	20~25	189 (82.2)	3.9±0.41	(.647)	3.1±0.14	(.840)	3.1±0.68	(.950)
	26~30	12 (5.2)	4.0±0.43		3.1±0.16		3.1±0.86	
Religion	Christian	58 (25.2)	3.9±0.40	2.43	3.1±0.16	1.51	3.0±0.58	0.90
	Catholic	22 (9.6)	4.1±0.32	(.049)	3.0±0.12	(.200)	3.0±0.62	(.462)
	Buddhist	27 (11.7)	4.0±0.43		3.1±0.11		3.2±0.63	
	None	123 (53.5)	3.9±0.41		3.0±0.13		3.2±0.75	
Education status	High school	23 (10.0)	3.9±0.36	0.67	3.1±0.11	2.75	3.1±0.96	1.30
	Community college	3 (1.3)	3.8±0.44	(.646)	3.1±0.21	(.020)	3.8±0.72	(.263)
	Under graduate	183 (79.6)	3.9±0.42		3.0±0.14		3.2±0.66	
	Graduate school	18 (7.8)	4.0±0.33		3.2±0.12		3.2±0.50	
	Others	3 (1.3)	3.7±0.53		3.0±0.13		2.5±0.45	
Economic status	Very rich	4 (1.7)	4.0±0.45	0.74	3.2±0.13	2.12	3.4±0.45	1.50
	Rich	51 (22.2)	4.0±0.42	(.567)	3.1±0.14	(.079)	3.3±0.68	(.203)
	Middle	142 (61.7)	3.9±0.39		3.0±0.14		3.1±0.67	
	Poor	28 (12.2)	3.9±0.44		3.0±0.11		3.3±0.62	
	Very poor	5 (2.2)	4.1±0.43		3.0±0.19		2.8±0.32	
Military class	Private second	38 (16.5)	3.9±0.39	0.58	3.1±0.15	0.52	3.2±0.59	3.77
	Private first <sup>a</sup>	94 (40.9)	4.0±0.42	(.627)	3.1±0.14	(.669)	3.0±0.67	(.011)
	Corporal <sup>b</sup>	76 (33.0)	3.9±0.41		3.0±0.14		3.3±0.69	a < b
	Sergeant	22 (9.6)	4.0±0.38		3.0±0.12		3.2±0.75	
Marital status	Single	227 (98.7)	3.9±0.41	0.04	3.1±0.14	2.30	3.1±0.68	0.60
	Divorced	3 (1.3)	3.8±0.09	(.963)	2.9±0.00	(.103)	2.9±1.01	(.552)
Duration of military service (month)	≤ 5	37 (16.1)	3.9±0.34	0.29	3.1±0.14	1.01	3.2±0.64	2.36
	6~10	71 (30.9)	3.9±0.45	(.883)	3.1±0.14	(.406)	2.9±0.60	(.054)
	11~15	61 (26.5)	3.9±0.44		3.1±0.14		3.3±0.71	
	16~20	33 (14.3)	3.9±0.35		3.0±0.12		3.2±0.69	
	≥ 21	28 (12.2)	4.0±0.34		3.0±0.15		3.2±0.80	
Health status	Very healthy <sup>a</sup>	48 (20.9)	4.0±0.36	2.82	3.1±0.13	3.12	3.6±0.75	11.75
	Well <sup>b</sup>	81 (35.2)	4.0±0.43	(.026)	3.1±0.15	(.016)	3.2±0.62	(<.001)
	Normal <sup>c</sup>	69 (30.0)	3.9±0.39		3.1±0.13	a > e	3.0±0.51	a > b, c, d, e
	Ill <sup>d</sup>	28 (12.2)	3.8±0.37		3.0±0.12		2.7±0.64	
	Very ill <sup>e</sup>	4 (01.7)	3.4±0.45		2.9±0.12		2.4±0.81	
Family relationship	Very good <sup>a</sup>	111 (48.3)	3.9±0.37	2.75	3.1±0.14	3.68	3.3±0.69	5.09
	Good <sup>b</sup>	88 (38.3)	3.9±0.44	(.044)	3.1±0.12	(.013)	3.1±0.56	(.002)
	Normal <sup>c</sup>	27 (11.7)	3.8±0.39		3.0±0.16	a > c	2.7±0.82	a > c
	Bad <sup>d</sup>	4 (1.7)	4.0±0.57		3.1±0.16		3.1±1.16	

개념( $r=.32, p<.001$ ), 자비심( $r=.24, p<.001$ )과는 정상관계가, 사회생활 제한( $r=-.31, p<.001$ )과 권위주의( $r=-.15, p=.024$ )와는 역상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책과 직무의 만족은 관계적 자기의 공감-배려( $r=.35, p<.001$ ), 지지받기( $r=.23, p=.301$ ), 관계의존( $r=.22,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상관계가 나타났으며, 관계회피( $r=-.25, p<.001$ )와는 역상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개념( $r=.19, p=.004$ )

과 자비심( $r=.16, p=.018$ )과는 정상관계가, 사회생활제한( $r=-.14, p=.029$ )과는 역상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는 관계의존( $r=.29, p<.001$ ), 공감-배려( $r=.28, p<.001$ )와는 정상관계가, 관계회피( $r=-.16, p=.017$ ) 순으로 역상관계를 보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 정신보건개념( $r=.14, p=.039$ )과 권위주의( $r=.13, p=.047$ )와는 정상관계가, 사회생활제한( $r=-.15, p=.023$ )과는 역상

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5.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정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가 가장 높은 것이 .38로 나타나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고, 공차한계는 .438에서 .814까지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49에서 2.28로 10보다 작아 모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군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단일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에서 정규분포를 확인하였으며, 회귀표준화 예

측값과 회귀표준화 잔차 간의 산점도(scatter plot)에서 특정된 형태를 보이지 않으므로 등분산성을 충족하였다.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로 2와 가까운 수치이므로 오차항간의 독립성이 만족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t에 대한 유의수준이 모두 .02보다 작았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8.55 ( $p < .001$ )로 나타나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공감-배려를 잘 할수록 ( $\beta = .32, t = 3.84, p < .001$ ), 권위적이지 않을수록( $\beta = .28, t = 3.37, p = .001$ ), 지역정신보건개념이 낮을수록( $\beta = .23, t = 2.84, p = .005$ ), 관계의존적일수록( $\beta = .22, t = 3.14, p = .002$ ), 사회적 제한을 해야 한다고( $\beta = -.19, t = -2.23, p = .027$ ) 생각할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30.1%였다 (Table 4).

Table 3.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N=230)

Variables	Relational self (X)							CAMI (Y)				
	x1	x2	x3	x4	x5	x6	x7	y1	y2	y3	y4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djustment during army life (Z)	z1	-.33**	.16*	.17**	.18**	.38**	.34**	.29**	-.03	.13*	-.02	.11
	z2	-.15*	-.04	.04	-.01	.23**	.05	.22**	-.15*	.24**	-.31**	.32**
	z3	-.25**	.09	.07	.07	.35**	.23**	.22**	-.02	.16*	-.14*	.19**
	z4	-.16*	-.05	.03	-.01	.28**	.06	.29**	.13*	.02	-.15*	.14*

X=relational self; x1=avoidance of relationship; x2=consciousness of others; x3=agency/initiative; x4=instrumental relation; x5=empathy-care; x6=perceived support from relation; x7=Overdependence to relation; Y=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y1=authoritarianism; y2=benevolence; y3=social restrictiveness; y4=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Z=adjustment during army life; z1=psychosomatic health state, z2=will of mission; z3=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z4=attitude toward military system environment, \* $p < .05$ , \*\* $p < .01$ .

Table 4. Predicting Factors on Adjustment during Army Life

(N=230)

Predictors	B	SE	$\beta$	t	p	Tolerance	VIF
(Constant)	0.37	.91		0.41	.685		
Authoritarianism	0.48	.14	.28	3.37	.001	.47	2.15
Social restrictiveness	-0.27	.12	-.19	-2.23	.027	.44	2.2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0.32	.11	.23	2.84	.005	.49	2.05
Empathy-care	0.29	.08	.32	3.84	< .001	.46	2.19
Overdependence to relation	0.20	.06	.22	3.14	.002	.67	1.49

$R^2 = .301, F = 8.55, p < .001$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1.49~2.28).

## 논 의

오늘날 신세대 군 장병은 컴퓨터와 함께 성장한 디지털 세대의 특성으로 군 조직에서 상하 계급간의 갈등이나 대인관계의 여러 형태의 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차원의 문제는 인간체계 및 환경과 상호작용이 되며, 적응수준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체계 능력에 영향을 주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으로 나타나므로(Roy & Andrews, 2001), 본 연구는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의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는 지지받기, 공감-배려, 타인의식, 도구적 관계, 주도성, 관계의존, 관계회피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나 조화와 배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욕구가 자기주장과 같은 적극적 경향성인 주도성보다 높았다. 이는 기혼남녀의 관계적 자기를 연구한 Kim (2008)의 연구에서 남자인 경우 지지받기,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타인의식, 주도성, 관계의존, 관계회피로 거의 비슷한 순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계적 자기를 연구한 Cho 등(2008)의 연구에서는 공감-배려, 지지받기, 관계의존, 타인의식, 주도성, 관계회피 순으로 다른 순서를 보였다. 이는 남녀의 차이뿐만 아니라 군의 환경과 같은 특수한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관계적 자기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요인(Dedic & Kostic, 2001)으로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 인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대인관계증진 전략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구나 입대 전에는 큰 문제가 없던 군 장병이라도 입대 후 관계적 자기의 새로운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 2007년 국방부가 육·해·공군의 2,865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군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선임병과의 대인관계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난 유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과 복종의 군 문화 내에서 유발되는 인간관계적 유대 문제는 군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Kim과 Park (1997)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대인관계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입대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 복무에 동원되고 있어 군 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으며(Koo, 2005)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간관계적 군 환경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Lee, 2011)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군 장병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자비심이 3.6, 지역정신보건개념이 3.4, 사회생활 제한 2.7, 권위주의 2.5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은 모두 점수가 높게 나타나, 군 장병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비심이 적고, 지역정신보건개념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권위주의적 태도와 사회생활제한은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나, 이 역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고도의 확일적이고 통일성을 요구되는 군 조직이 집단의 질서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개인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군 조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생활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낫다(Lee, Ann, & Hyun, 2010)고 인식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도 이미 통제되는 군 조직에 익숙해져 Kim (2010)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청소년, 주부, 노인과 같은 일반인보다 군인은 자비심이 부족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였다. 반면에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Lee 등(2010)의 연구,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Sakong, Song과 Sohn (2000)의 연구, 농촌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 (2010)의 연구보다 군 장병이 더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동료 병사들의 문제에 적극적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도 조기치료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어, 치료에 대한 기대도 미약하며,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의 어려움을 감춤으로서 더욱 문제를 키워서 군 사고의 요인으로 야기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군 장병의 군 생활 적응의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Jung (2006)과 Koo (2005)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였다. 또한 심신상태,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임무수행의 의지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적응을 보이는 심신의 상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수록 군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Park (2011)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고, 군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측정하는 임무수행 의지는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적응을 보였다. 이는 구성원이 조직을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Jung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Koo (2005)의 연구에서는 심신의 상태, 직책과 직무만족, 임무수행 의지,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순으로서 차이가 있었다. 임무수행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군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를 위해 소속감과 정체성 공유와 만족감과 의지를 가지도록 (Jung, 2006)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좀 더 신세대 장병 구성원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는 군 환경의 구조변화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적 자기는 종교, 건강상태, 가족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은 계급, 신체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관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경제상태, 결혼상태, 군복무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Koo (2005)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Hyun 등(2009)의 연구에서 복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군 장병의 관계적 자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배려적이거나 관계의존적일 때 지지받기, 주도성, 도구적 관계, 타인의식, 관계회피적 상황보다 더 군 생활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배려는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나 타인의 경험과 그에 연관된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으로 친사회적 또는 이타적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 요소이며, 관계의존은 만성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자기중심에 놓고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을 규정하려하며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 초점을 두고 몰두하는 관계 맺기이다(Kim, 2008). 또한 군 장병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임무수행 의지, 직책과 직무 만족,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도의 통일성이 요구하는 단체로서 군이 조직의 질서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들을 어느 정도 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Lee 등(2010)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군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관계적 자기의 다면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단일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유의하였으며, 설명력 값은 30.1%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전체 군 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배려를 잘 할 수

록( $\beta = .32$ ), 다음은 권위적이지 않을수록( $\beta = .28$ ), 지역정보 건개념이 낮을수록( $\beta = .23$ ), 관계의존적일수록( $\beta = .22$ ),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beta = -.19$ )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Jung (2006)은 군 장병이 군조직의 획일적이고 조직적인 구조에서 수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군의 특성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주도성과 같은 적극적인 관계보다는 공감-배려나 관계의존적인 수동 관계적 자기의 성향이 군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보건 개념이 낮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폐쇄적인 생각을 할 때 군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0). 즉, 군 장병은 군에서의 시작되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적극적 상호소통과 지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군의 다양한 계급에서 대인관계 양상을 알아보거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연구변인들과 그 경로를 밝히는 군 생활 적응을 위한 확대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기밀누설과 폐쇄된 집단의 특수성을 지닌 군의 표집과정에서 편의표집으로 선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군복무를 사회와 격리되어 한정된 시간을 소모하는 곳으로 인식하여 피동적인 복무태도를 가짐으로, 군에서 생긴 부적응 문제가 제대 후 남은 일생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군은 정신건강 관련 요원과 함께 군 장병이 건전한 인간관계와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간관계에서 발현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관계적 평가를 처음으로 군 생활 적응에 시도하여 기인됨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인간관계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신간호중재 개발이나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군 장병은 제대 후 바로 지역사회로 흡수될 사회구성원으로, 국가나 학계는 물론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인간관계증진 프로그램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할 우선순위의 간호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결론

본 연구는 Y와 B시의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적응체계로서의 인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을 활용하여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군 장병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군 생활의 부적응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가 시도되었

다. 본 연구에서 군 장병은 공감-배려를 잘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해 권위적이지 않을수록, 지역정신보건개념이 낮을수록, 관계의존적일수록,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 $R^2=30.1\%$ ,  $F=8.55$ ,  $p<.001$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군 장병들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타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정적 태도를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측면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8). *A study of prevention system and improvement for accident of military suicide* (Issue Brief No. 11-1140100-000014-14). Seoul: Author.
- Bang, H. J., & Cho, H. J. (2004). Effects of gender-stereotype activation in men's and women's self-construal.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83-106.
- Bang, H. J., Yun, J. Y., Kim, A. Y., Cho, H. J., Cho, S. K., & Kim, H. J. (2007).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relational self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al self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3*, 23-65.
- Baumeister, R. F. (1997). Identity, self-concept, and self-esteem: The self lost and found.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681-71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ho, S. J., Bang, H. J., Cho, H. J., & Kim, H. J. (2008).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al self according to contexts.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113-130.
- Dedic, G., & Kostic, P. (2001). Causes of frustration in soldiers during the period of adjustment to the military environment. *Vojnosanitetski Pregled, 58*, 621-630.
- Han, S. H., & Song, M. R. (2011). The study on the problem of identifying process of service-maladjusted soldiers and improvement measures.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4*, 49-83.
- Hyun, M. S., Chung, H. I., & Kang, H. S. (2009). Influencing factors on military adjustment among Korean soldi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305-312.
- Jung, H. J. (2006). *The stress coping style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of sold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S. A., Kim, H. L., Woo, C. H., Park, S. I., & Keum, R. (2011). Communication abilit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nd depression in Korean soldi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81-90.
- Kim, U. C., & Park, Y. S. (1997). Stress, appraisal, coping, and adaptational outcome: An indigenous model.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 96-126.
- Kim, T. H. (2008). *Relational self of married people: Differences in relational self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of origin and family different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S. (2010).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ness residents, mental health problems and mental health awareness in a rur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Y. S., & Kim, S. K. (2010). Attitudes of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s toward the mentally ill in rural area. *Chungbuk Medical Journal, 20*, 29-39.
- Kim, U. C., & Park, Y. S. (1997). Stress, appraisal, coping, and adaptational outcome: An indigenous model.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 96-126.
- Kim, Y. S. (2010).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ness residents, mental health problems and mental health awareness in a rur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oo, S. S. (2005). An impact factor of adjustment in military life of the new generation soldier.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68*, 199-217.
- Lee, J. H., Lee, C. S., Hwang, T. Y., Han, K. S., & Lee, Y. W. (1996).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in Suseo-Ilweon community. *Bulletin of Yong-In Psychiatric Institute, 3*(2), 188-199.
- Lee, Y. H. (2011). A qualitative research about the suicide attempt and the suicide thought which reservists had suffered during military service.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5*(2), 61-93.
- Lee, Y. M., Ahn, E. K., & Hyun, H. S. (2010). Military personnel's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Journal of the Korean Military Medical Association, 41*, 57-67.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yo, E. (1933). *The human problems of an industrial civilization*. New York: Macmillan.
- Park, H. G. (2011). *The effects of soldiers' sports injury on their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and adaptation to the militar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Park, Y. H. (2003). A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 relations theory in the humanization of the Korea bureaucracy. *Korean*

- Human Relations Review*, 8, 1-14.
- Row, K. R., Bang, H. J., & Cho, H. J. (2007). Differences in relationship patterns according to the adult attachment and gender.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 471-490.
- Roy, C. (1984). *The roy adaptation model in nursing: Applications in community health nursing*. Paper presented at the eighth annual Community Nursing Conference, Chapel Hill, NC.
- Roy, C., & Andrews, H. A. (2001). *Roy adaptation model* (2nd ed.). (Lee, K. S., Kim, C. G., Sung, M. S., Lee, M. O., Jang, H. J., & Jeong, G. H., Trans.). Seoul: Hyunmoon.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Sakong, J. K., Song, C. J., & Sohn, I. K. (2000). A study on the health personnel's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Dongguk Journal Natural Sciences*, 39, 217-236.
- Shin, T. S. (1981).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of military personnel and adjustment in militar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Williams, R. M. (1949). *The American soldier: Adjustment during army life*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Vol. I).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12).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6th ed.). New York: Harper & Row.
- Taylor, S. M., & Dear, M. J. (1981).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Bulletin*, 7, 225-240.
- Yang, S. M. (2007). Korean army's soft power and the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9, 111-131.
- Yeon, H. S., & Oh, K. J. (2004). Interpersonal-represent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depressives: Comparison of autonomous-depressives and sociotropic-depressiv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577-594.